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수 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¹⁾

이은우 | 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자원고갈, 공해와 환경오염, 자연서식처의 무분별한 파괴 등 탓에 피조세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을 구약 성경에서 찾는다. 로비트(Loewith), 화이트(White Jr.), 아메리(C. Amery) 같은 기독교 비판자들은 성경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환경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²⁾ 드레버만(Drewermann)은 창세기 1:26 이하의 “하나님의 형상”(첼렘 엘로힘)과 “땅의 지배”(dominum terrae)에 대한 개념이 자연을 단순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1) 이 글은 2011년 제14회 장신대 소망신학포럼 개인과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소망신학포럼 위원회와 장신대 연구지원처의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 일부이다.

2) K. Loewith, *Vortraege und Abhandlungen, Zur Kritik der christlichen Ueberlieferung*, Stuttgart, 1966; L.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C. Amery, *Das Ende der Vorsehung, Die gnadenlosen Folgen des Christentums*, Hamburg, 1972.

환경위기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³⁾ 화이트는 “서구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보다도 인간 중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발달한 기술 과학 문명이 자연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⁴⁾ 즉,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하고 인간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⁵⁾ 화이트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이 정통 기독교의 자연에 대한 오만함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 과학 기술만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⁶⁾

구약 성경이 인간의 구원 문제 및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⁷⁾ 다른 피조 세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약 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에 대해 별도의 신학적 진술을 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의 창조론이 역사 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시각의 지배를 받아 왔기에 이런 비난의 근거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철저히 역사의 주로 이해하고, 그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 또는 그 드라마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이해되었다.⁸⁾ 폰 라트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속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이며, 창조에 대한 신앙고백은 나중에 역사의 서론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창조는 출애굽과 족장들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⁹⁾ 그의 신학을 대표하는 말이 “구속사

3) E. Drewermann, *Der toedlich Fortschritt, Von der Zerstoerung der Erde und des Menschen im Erde des Christentums*, Regensburg, 1992.

4) 린 화이트, “생태계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 근거”, 프란시스 A. 웨퍼 저, 「공해」(서울: 두란노 서원, 1990), 87.

5) 위의 책, 89. 그는 성경의 진술 자체보다는 서방 기독교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도 초대교회와 헬라적인 동방교회의 자연신학보다는 서방 라틴교회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인 앗시시의 성 프랜시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207.

7) Tom Hayden, *The Lost Gospel of the Earth: A Call for Renewing Nature, Spirit, and Politics*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6), 2.

8) 강성열, “버나드 앤더슨의 창조신학과 생태윤리,”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4.

9) G.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 E. W. Trueman Dicken (New York: McGraw-Hill, 1966), 131-143.

신학”인데 상당수의 학자가 그의 신학을 직접 계승하거나 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님의 창조사역이나 자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급을 독립적인 신앙체계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위기가 인류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전 지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창조론에 대한
반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구약 학자가 자연을 독립적인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착취와 파괴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반성
을 하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언급을 더는 구속 신학에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신학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환경 위기에 대한 비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태학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과
제를 구약학자들에게 던져 주었다.¹⁰⁾

그동안 이 논의에서 늘 주목을 받았던 린 화이트의 주장을 유명한 제임스 바
(James Barr)가 반박했다. 그는 성경은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고 말하며, 우리가 자연 파괴에 대해 논하려면 인간이 창조주 아래에 있지 않고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인문주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앤더
슨도 초기에는 폰 라트의 구속사 신학에 따라 창조론을 진술했지만,¹²⁾ 그 이후에
구속사적인 창조론과는 구별되는 생태학적인 창조론에 관심을 보이며 틈틈이 논
문을 발표했고, 1994년에 이 논문들을 모아 출판했다.¹³⁾ 국내에서는 강성열이 앤
더슨의 입장을 잘 소개해 주고 있다.¹⁴⁾ 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주년을 기념하
는 논문에서 국내의 구약학자들이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생태적 시각으로 성경
읽기를 시도하며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¹⁵⁾ 최근에는 조셉 블렌

10) 강성열, *읽글*, 105.

11) J. Barr, "Man and Nature: The Ecological Controversy and the Old Testament",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D. and E. Spring, ed., (New York: Harper & Row, 1974); J. Blenkinsopp, *Treasures Old & New: Essays in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Cambridge/Michigan: Grand Rapids, 2004), 38.

12) B. W. Anderson,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7).

13) B. W. Anderson,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4) 강성열, *읽글*, 103-126.

킨숍(Joseph Blenkinsopp)이 창세기를 생태적 시각에서 주석했고,¹⁶⁾ 마가렛 바커(Margaret Barker)는 신구약 전반을 생태적 시각으로 읽는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¹⁷⁾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공헌을 바탕으로 성경 비판자들이 환경 파괴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창 1장 1절-2장 4a절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해 이들의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창조 이야기에 관심을 집중해 이 본문에 대한 부정적 주장을 반박해 보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생태윤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2.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에 나타난 생태윤리

1) 피조세계의 우주적 아름다움에 대한 수사적 궁정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같은 표현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반복법”(Parallelism)을 구사해 하나님의 반복되는 창조 사역과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הַשָּׁמַיִם**)과 땅(**הָאָרֶץ**)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1절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양극 대칭법”(merismus)으로 1장 1절-2절 4a절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 수사적 대칭언은 환유법이나 제유법과 유사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양극에 있는 하늘과 땅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사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이 수사법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표현하는 수사법이기도 하다. 인간 지성은 지상의 관점에서 우주의 광대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비유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은유법과는 다르다. 은유법이 다분히 추상적이라면 이 “양극 대칭법”은 좀 더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

15) 왕대일(“생태계 안에서 오경 다시 읽기”), 김영진(“역사와 환경”), 이경숙(“시편에 나타난 창조신학”), 차준희(“생태적 전망에서 성서 다시 읽기: 예언과 환경”), 우택주(“환경친화적 성서 읽기: 12 예언서”) 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엮음,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6) J. Blenkinsopp, *Treasures Old & New: Essays in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Cambridge/Michigan: Grand Rapids, 2004);idem, *Creation, Un-Creation, Re-Creation: A Discursive Commentary on Genesis 1-11* (London/New York: T&T Clark, 2011).

17) Margaret Barker, *Creation: A Biblical Vision for the Environment* (London/New York: T&T Clark, 2011).

18) C. Westermann, *Genesis 1-11* (Neukirchener Verlag, 1974), 8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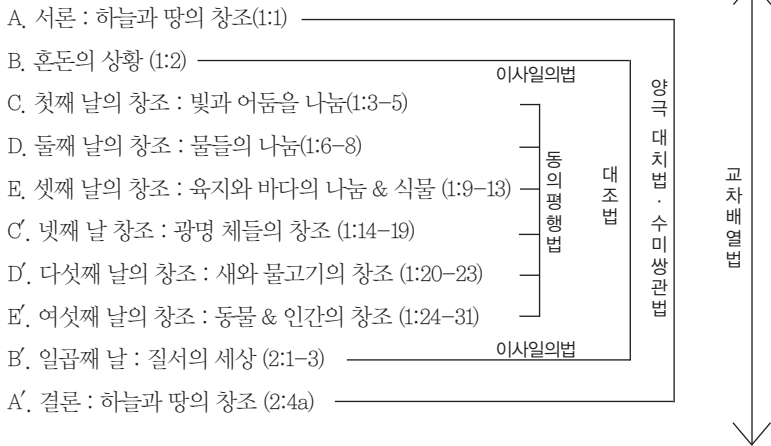
장 1절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양극을 나타내는 하늘과 땅이라는 어휘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지전능 하심을 드러내는 수사적 감탄의 표현이다. 이러한 특징은 창세기 1장 1절 - 2장 4a절의 수사적 구조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창조 이야기는 “교차 배열”(Chiasmus)을 이루며 우주적 관점(Cosmic concerns)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수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2장 4a절과 대칭을 이루며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선포하며, 창조 이야기의 뼈대 역할을 한다. 여기서 2장 4a절은 1장 1절의 어순을 역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수미쌍관”(Inclusio)을 이룬다.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1: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אֱלֹהֵי תְּחִלַּת הַשָּׁמַיִם וְהָאָרֶץ בְּהַבְרָאָה 2:4(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라)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1-3절은 태초의 혼돈 상황과 창조의 완성 이후의 질서의 상황이 대칭을 이룬다. 1장 2절의 “공허와 혼돈”은 영어로 헨디아디스(hendiadys)라고 표현하는 어법으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이사일의(二詞一意) 어법이다. 이 어법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공허”로 번역된 תְּהוֹ (토후)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20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0절; 욥기 6장 18절; 12장 24절; 시편 107편 40절에서는 “사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사야 24장 10절; 34장 11절; 40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사막”이나 “폐허”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어가 “창조”에 앞선 “공허”의 의미로 번역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그가 그것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욥기 26장 7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허공”을 의미하며, “아무것도 아님”(nothing)을 의미하는 בְּלִי (벨리)와 짝을 이룬다. 이와 비슷하게 “무”(nothingness)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자주 나타난다 (삼상 12:21; 사 29:2; 40:17; 41:23; 44:9; 45:19; 59:4). 이사야 40장 17절에서는 אֵפֶס(에페스)가 이 단어와 짝을 이루고, 이사야 49장 4절에서는 רֵיק(리크)와 הֶבֶל(헤벨)이 짝을 이루어 “완전한 무”의 상태를 의미한다.¹⁹⁾ בְּהוֹ(보후)는 구약 성경에 세 번 나타나는데(창1:2; 사 34:11; 렘 4:23), 모두 <토후

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וָחַד와 וְחַד는 서로 각운을 이루며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데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이사일의 어법”으로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이 두 단어의 결합으로 창조 이전의 전적인 무의 상태(ex nihilo)에서의 공허와 혼돈이 강조된다. 창세기 2장 1-3절은 1장 1-2절의 문구를 역순으로 사용하며, 도입부와 반향을 이루며 대칭을 이룬다. 첫 번째 문단인 1장 1-2절과 2장 1-3절의 대응성은 히브리어 단어를 7의 배수로 사용하며, 서로 대응 강조된다. 1절은 7개의 단어로, 2절은 14개의 단어로 2장 1-3절은 35(7*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7이라는 완전 수가 기묘한 방식으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선언한다.²⁰⁾ 여기에 2절의 창조 이전의 완전한 공허와 혼돈의 상황과 2장 1-3절의 창조 이후 질서의 상황이 대조를 이루며 피조 세계 질서의 완전함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차 평행을 이루는 구조 속에서 처음 3일과 이어지는 3일이 “동의 평행”(Parallelism)을 이루며 짝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3일간은 형태를 창조하고 이어지는 3일간은 각각의 형태에 생명체로 채우신다. 이 구조를 표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 윗글, 102-103.

20) 고든 웬햄, 박영호 역, 「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88.

서론(1:1)	하늘과 땅의 창조 (Merismus)(Inclusio)		A	
본론(1:2-2:3)	혼돈의 상황 (이사일의법)(1:2)		B	
	첫째 날 창조 (1:3-5)	넷째 날 창조(1:14-19)	C	C'
	둘째 날 창조 (1:6-8)	다섯째 날 창조(1:20-23)	D	D'
	셋째 날 창조 (1:9-13)	여섯째 날 창조(1:24-31)	E	E'
	일곱째 날 창조 : 질서의 세상 (2:1-3)		B'	
결론(2:4a)	하늘과 땅의 창조(Merismus)(Inclusio)		A'	

창 1:1-2:4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편 8편 역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노래, 악장에게: 깃딧에 맞추시오.](사역)²⁰⁾

A	1.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의 위엄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동의 평행법 · 반복법 a b (c) á b' c' a b c á b' c' 동의 평행법 · 반복법	수 미 쌍 관	교 차 배 열 법
B	2. 어린아이와 젓먹이의 입술을 가지고서도 원수와 보수자를 꺾고 주의 대적자들을 막을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C	3.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보살피 주시나이까?			
B'	5.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나이다. 7.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까지도 8. 하늘의 새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A'	9.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과 9절이 수미쌍관(Inclusio)를 이루며 시 전체의 아름다운 틀을 형성하며, 3절과 4절은 abca'b'c'의 동의 평행을 반복하며 이 시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 2절과 5-8절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A-B-C-B'-A'의 교차 배열(Chiasmus)을 이루고 있다.

A 1절: 온 땅 위에, 하늘 위에 드러나는 야훼 이름의 장엄함

B 2절: 어린이, 젖먹이 같은 사람들을 원수들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심

C 3-4절: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B' 5-8절: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둠

A' 9절: 온 땅 위에 드러난 야훼 이름의 장엄함

이 시는 수미쌍관의 수사법을 통해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교차 배열법을 통해 피조세계의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중심부에 나타나는 두 개의 동의평행법을 통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 수사적 구조에서 보면 왕으로서의 인간이 강조되어 있다기보다는 광활한 우주에 비추어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 수사적 이해 속에는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8편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2절 4a절 역시 수미쌍관법(Inclusio), 양극 대칭법 (merismus), 이사야의 어법, 교차 배열법, 동의 평행법, 반복법 등의 수사법을 구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찬양하며 선포한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4, 10, 12, 18, 21, 25),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긍정의 말씀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 “좋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טוב(토브)는 파괴되거나 더럽혀지거나 어그러짐이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수사적 대칭 구조에 나타난 우주적 질서와 아

2) 시편 8편의 수사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출고,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성서마당』(한국성서학연구소), 2010년 겨울 신창간 제 27호 통권 96호, 52-64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름다움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커다란 범죄인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나타난 생태윤리

창세기 1장 26-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의 생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형상”을 의미하는 **צֶלֶם**(첼렘)이란 단어는 17번 나온다(창 1:26, 27(2); 5:3; 9:6; 민 33:52; 삼상 6:5(2), 11; 왕하 11:18; 대하 23:17; 시 39:2; 73:20; 겔 7:20; 16:17; 23:14; 암 5:26).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조각상,”(삼상 6:5, 11; 왕하 11:18; 대하 23:17), “만든 형상,” “신의 상징화된 모형,”(겔 7:20; 암5:26; 민 33:52) 등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영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단어는 오히려 “물질로 구체화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을 의미한다.²²⁾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모양”을 의미하는 **תְּמוּנָה**(테무트)란 단어와 상호교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된다.²³⁾ 물론 <테무트>란 단어는 <첼렘>처럼 “형상,” “모양,”(겔 1:5, 10, 28; 10: 10, 21; 단 10:16) 등의 의미로 쓰이지만, 일차적인 의미는 “유사함,” “복사,” “모방,”(창 1:26; 5:1, 3; 왕하 16:10; 사 40:18; 겔 23:15; 대하 4:3) 등의 의미이다. <테무트>는 두 가지 사물 간의 비교를 위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또 어떤 것이 ~같은, ~로서 등의 문구들에 의해 다른 것 또는 그 외의 것의 ‘외모’나 ‘형태’를 지녔다는 진술로도 사용된다. 이 두 단어가 하나님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의 의미로 사용된 곳은 세 군데 뿐이다(창 1:26-27, 5:1, 9:6).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구약학의 “하나님 형상” 이해는 구약 주변 세계의 이해에 주목한다. 구약 주변 세계에서는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왕과 관련해 사용했다. 천상의 영역과 지상의 영역을 연결해 주는 존재인 왕은 “신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는 이집트 만신전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Ra)가 “바로”(Pharaoh)를 “라

22) C. Westermann, *Genesis 1-11*, 146.

23) 윌클, 145-6.

의 모양” 혹은 “라의 형상”이라 부른다. 아몬 라(Amon-Ra)가 기원전 14세기 왕인 아메노피스 3세(Amenophis III)를 부른 표현은 좋은 예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형상이요... 내가 너를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다.”²⁴⁾ 구약 주변 세계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의미했다. 구약 주변 세계의 맥락에서 창세기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술을 해석하면, 인간이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주변 세계에서는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왕으로 창조된 것이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Crown)을 씌우셨다는 시편 8편4-5절의 표현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왕권의 개념을 민주화한다.

폰 라트(von Rad)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세상의 대왕들이 몸소 행차할 수 없는 왕국의 각 지방에 그들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형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주권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한다.²⁵⁾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구약 성경은 구약 주변 세계의 제왕 신학을 민주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했다. 모든 인간이 왕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이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이 왕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자연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파괴해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는 없다. 브루거만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초청하며 불러일으키며 허용하는 권세의 창조적 사용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여기에 하나님이나 인류를 위한 강압적이거나 폭군적인 권세는 전혀 없다.”²⁶⁾라고 주장한다. 그는 창세기 1장의 Imago Dei에 대한 윤리로서 ‘지배하는 권세’보다 ‘함께하는 권세’로서의 윤리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잘못 오용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정복에 의한 성경 해석이 생태윤리적 파경

24) H. Wildberger, “Das Abbild Gottes”, *Theologische Zeitschrift* 21 (1965), 484ff.; W. H. Schmidt, *Die Schoe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64), 136ff.; 박준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 사상』 369(1989년 9월), 104-120; 김이곤, “인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창세기의 현대적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85-109.

25) J.Richard Middleton, 성기문 옮김, 『해방의 형상』(서울: SFC, 2010), 31.

26) 윌클, 391.

으로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관대한 행위로서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러한 특징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바벨론의 인간 창조 이야기의 비교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신들이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바벨론의 이데올로기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명백한 요구 없이 단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민주적 개념의 왕이시다.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왕의 개념에서 소외된 타락이며,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민주적 개념의 하나님 형상인 왕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3)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동사에 나타난 생태윤리

창조 이야기에 있어 가장 환경 파괴와 억압과 관련해 주목받은 용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오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두 개의 동사이다. 그렇다 면 이 두 단어는 환경 파괴를 정당화해주는 용어인가?

(1) “다스리라”에 대한 바른 이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קָנַן (라다)의 번역이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6회 사용되었다 (창 1:26, 28; 레 25:43, 46, 53; 26:17; 민 24:19; 삿 14:9(2); 왕상 5:4, 30; 9:23; 대하 8:10; 느 9:28; 시 49:15; 68:28; 72:8; 110:2; 사 14:2, 6; 41:2; 겔 29:15; 34:4; 렘 5:31; 애 1:13; 율 4:13). 이 단어의 일차적인 뜻은 “포도주 틀을 밟다”(율 4:13)라는 뜻이다. 아람어에서도 비슷한 어원의 동사가 나타난다. 앗수르어(*radu*)와 시리아어에서는 “가다,” “쫓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다스리다,” “지배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욥기 4장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포도주 압착기를 누르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느헤미야 9장 28절에서는 “적을 쳐부순다.” “적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강제노동을 통하여 노예를 억압한다.”²⁷⁾ 이 단어는 이런 용례를 통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단어를 너무 단

편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말은 원래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의 궁중 언어로서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²⁸⁾ 황제가 그 땅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곧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에스겔 34장 4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드는” 목자(겔 34:16)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편 72편 8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는” 왕(시 72:3-4)을 고려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민주적 개념의 왕과 연결할 때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생태계에서 억압받고 착취 받는 자연을 찾아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적극적 개념의 책임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2) “정복하리”에 대한 바른 이해:

“땅을 정복하리”는 표현에서 “정복하다”는 동사는 פָּקַד(카바쉬)라는 히브리어 동사이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4번 사용되었다(창 1:28; 민 32:22, 29; 수 18:1; 삼하 8:11; 렘 34:11, 16; 미 7:19; 스 9:15; 대하 22:18; 28:10; 느 5:5(2); 예 7:8). 이 단어의 앓수르어 어원은 *kabasu*로 “밟다,” “짓밟다,” “차다,” 등의 의미이다. 아람어에서도 “짓밟다,” “복종시키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짓밟다”(스 9:15; 미 7:15), “굴복시키다,” “정복하다”(창 1:28; 렘 34:11; 대하 28:10; 느 5:5)이고, 심지어 “강간 폭행하다”(예 7:8)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환경에 위협을 주는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야콥(B.B. Jacob)은 “땅을 정복하리”는 이 명령은 인간이 세계의 몸인 “땅에 대한 무제한의 주권”(Herrschaft)을 얻었으며, 산에 굴을 뚫고 산을 옮기며 강물의 흐름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²⁹⁾ 릴리

27) G. Friedrich, *Oekologie und Bible*, S. 10.

28) C. Westermann, *Schoepfung, Themen der Theologie 12*, (Stuttgart, 1971), 75 ff.; N. Lohfink, *Unsere grossen Woerter, Das Alte Testament zu Themen dieser Jahre*, (Freiburg, 1977), 166.

29)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1*, S. 231.

에(H. Lilje)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통해 인간의 활동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³⁰⁾ 과학 기술은 창조의 첫 아침의 광채를 드러내며, 하나님 활동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때문에 “자연에 대한 정통 기독교적인 교만(Arroganz)”을 가져왔으며, “기독교의 무자비한 결과들”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³¹⁾

그러나 “정복하라”는 말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진술 중에 나온 말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복의 선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אָרַב(페루)와 רָבַח(레부)의 결합으로 서로 각운을 이루며 “열매를 맺고,” “수적으로 증가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사일의 어법”(hendiadys)이다. 연속해서 나오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 역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땅을 가득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라”이다. 이 표현 역시 동의 평행법이다. 따라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서로 평행하며 같은 복의 반복을 의미한다. 몰트만의 표현대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정복”은 자연의 억압과 착취와 파괴를 의미할 수 없다.³²⁾ 여기서 “충만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מָלֵא(밀러우)는 “넘치게 채우다”라는 뜻을 갖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자녀로 땅을 채우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복하는 말은 수적으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여서 충분히 수확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정복하라”는 말은 자연에 대한 파괴와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가꾸면서 자연의 소산물을 먹고 많은 자식을 낳고 건강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의 연속이다.³³⁾ 이 말은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다스리라”라는 명령과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민주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30) H. Lilje, *Das technische Zeitalter, Versuch einer biblischen Deutung*, Berlin 1928, S. 77.

31) G. Altner, “Ist die Ausbeutung der Natur im christlichen Denken begründet?“, in: H.D. Engelhardt, *Umweltstrategie, Materialien und Analysen zu einer Umweltheik der Industriegesellschaft*, Guetersloh 1975, 33; C. Amery, *Das Ende der Vorsehung*, 10ff.;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03.

32) 김균진, *윗글*, 103.

33) 목창균, “생태학적 신학과 창조신학” 『목회와 신학』 38호, (2000년 8월호), 77.

창조하신 움직이는 생물들을 살피고 보호하며 섬김으로 창조질서를 보존할 뿐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재배하여 필요한 식물을 얻어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다른 피조물과 함께 땅에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 이 땅을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성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선한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4) 먹거리 이야기에 나타난 생태윤리

창조 시에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일을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창 1:29-30, 사역).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채식주의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식생활의 원형(Ur-type)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사 11:6-7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사자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다른 짐승을 식량으로 삼지 않았다. 짐승들도 다른 짐승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의 과실과 식물을 먹거리로 삼았다. 육식은 타락 이후, 홍수 심판 이후에 생겨난 일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을 너희 손에 주었느니라.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거리가 될지니

신성한 채소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창 9:2-3, 사역).

그러나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창 9:4). 구약 성경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히 강조한다. 상업적인 목적이나 실험의 목적으로 잔인하게 동물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동물 학대나 잔인한 동물 살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일일 수 있겠다.³⁴⁾

5) 안식일에 나타난 생태윤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에서 완성된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다.³⁵⁾ 그러나 이것 역시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다. 오히려 모든 창조가 안식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창조의 면류관”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라 할 수 있다.³⁶⁾ 로젠츠바이크(Rosenzweig)는 안식일은 “창조의 잔치”라고 했다.³⁷⁾ 폰 라트는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일곱째 날 그의 안식을 통해 완성했다”고 주장한다.³⁸⁾ 안식일은 창조의 핵심이요, 창조의 완성이다.

“쉬다”를 의미하는 שָׁבַט(샤바트) 동사는 기본적으로 “멈추다” “일을 쉬다” “잠잠하다” “휴일을 갖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완성하고 쉬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들의 완성이 제 칠일의 하나님의 쉬심과 관계가 있으며,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쉬심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의 쉬심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으로 인간도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데 이것은 온전히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을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 및 피조물 전체가 참여하는 것

34)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94.

35) 윗글, 109.

36) J. Moltmann, *Gott in der Schoepfung*, 20, 45, 279 ff.

37) R. Rosenzweig, *Der Stern der Erloesung*, Heidelberg 1959, 65; J. Moltmann, *Gott in der Schoepfung*, 280.

38)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Ueberlieferung*, (Muenchen, 6. Aufl., 1969), 161.

을 의미한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객이나 종을 포함한 모든 사람뿐 아니라 (소나 나귀나) 가축까지 안식하게 하라고 명한다(출 20:10; 신 5:14). 안식일에는 모든 가축도 안식해야 한다. 물론 인간의 안식일 휴식은 인간과 동물은 물론 자연에게까지 확대된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나무를 채취함으로써 양식과 빨감과 집과 옷을 얻었다. 따라서 사람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논과 밭과 나무와 동물이 휴식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⁹⁾

안식일 계명은 안식년 계명으로 확대된다. 안식년 개념은 처음에는 사회적 관심에서 생겨났다:

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네 땅에
 씨를 뿌려 그 소산을 거두고
11 일곱째 해에는 놀리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리할지니라 (출 23:10-11, 사역).

물론 이 계명에는 들짐승들에 대한 생태학적 배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땅에 대한 생태학적 배려로 확대된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밭을 가꾸지 말며(레 25:4, 사역).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의 칼에 의해서라도 멸망시켜 땅을 안식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33 내가 너희를 이민족들 사이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들고 너희를 쫓으리니

39) 김균진, *유훈*, 114.

마침내 너희의 땅은 썩발이 되고 너희 성읍은 폐허가 되리라
 34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레 26:33-35, 사역).

역대하 36장 20-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년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한다:

20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 이에 이 땅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대하 36:20-21,
 사역).

안식년 계명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이 비옥해질 것이며 많은 소출을 낼 것이다. 땅은 생명의 근원이다. 땅이 생명력을 잃으면 그 위의 생물과 사람도 죽거나 쫓겨나게 된다.⁴⁰⁾ 따라서 안식년 계명은 단지 인간에게만 부과된 하나의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생태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식년의 계명은 “희년”의 계명으로 확대된다. 하나님의 사회적 관심과 생태학적 관심이 희년 계명에서 하나가 된다. 희년에 사람은 땅을 쉬게 해야 하며,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빛을 면제해 주어야 하며, 가

40) 윗글, 117.

난하여 자기의 몸을 판 종을 해방해야 한다 (레 25:8-55). 희년을 통해 땅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와 모든 자연의 권리가 회복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규정은 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 즉, 온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태학적인 명령이요, 지혜이다.

3. 결론

1) 결론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창조기사는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린 화이트와 기독교 비판자들의 주장은 본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수미쌍관법, 양극대칭법, 이사일의 어법, 교차 배열법, 동의 평행법, 반복법 등의 수사법은 온 우주 생태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찬양하는 선포이며, 동시에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전할 것을 명하는 수사적 대선언이며, 상징적 명령이다. 특히 창세기 1장 26-28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나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동사 역시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구약 주변 세계의 전제 군주적 제왕신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식 민주적 개념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는 표현이다. 먹거리 문화에서도 채식주의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생활의 유형이며,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식생활의 원형(Ur-type)임을 말해 준다. 안식일 규정은 우리 인간에게뿐 아니라 땅과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되어 지켜야 할 계명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은 우리 인간에게 생태계를 향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본문은 우리 인간에게 적극 자연 보호와 피조세계의 보전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고 있다.

2) 과제

위에서 살핀 것처럼 창 1장 1절-2장 4a절의 창조 이야기에 자연 착취나 억압이나 파괴를 정당화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의 다른 신학

분야에서 마치 린 화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빚진 것처럼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생태학적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구약학 분야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는 구약학 연구의 방법론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다른 분야와 대화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화 가능한 주제들에 대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공적인 영향력 및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성서신학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성서학자들의 좀 더 적극적인 생태학적 성경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장의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설교나 성경 읽기를 하지 않도록 이들을 적극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편 등 성문서나 예언서의 창조신학적인 본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생태학적 성경 읽기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 성서의 창조 기사와 한국의 창세신화 비교 -혼돈의 주제를 중심으로-」(신학이해 제27집).
- _____, 「고대 근동의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3).
-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엮음,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군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김도훈, 「생태신학과 생태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김명용, “창조의 보전과 새로운 창조신학,” 「장신논단」 제6집(1990.12)
- 김이곤, “인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창세기의 현대적 이해」(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79), 85-109.
- 김정준, 「폰 라드의 구약신학」(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3).
- 목창균, “생태학적 신학과 창조신학” 「목회와 신학」 38호, 2000년 8월호.
- 박영호 역, 고든 웬햄, 「창세기」(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 박준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 사상」 369(1989년 9월), 104-120.
- 성기문 옮김, J.Richard Middleton, 「해방의 형상」(서울: SFC, 2010).

- Altner, G., “Ist die Ausbeutung der Natur im christlichen Denken begründet?“, in: H.D. Engelhardt, *Umweltstrategie. Materialien und Analysen zu einer Umweltethik der Industriegesellschaft*, Guetersloh 1975.
- Amery, C., *Das Ende der Vorsehung. Die gnadenlosen Folgen des Christentums*, Hamburg, 1972.
- Anderson, B. W.,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7).
- _____,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Barker, M., *Creation: A Biblical Vision for the Environment* (London/New York: T&T Clark, 2011).
- Barr, J., “Man and Nature: The Ecological Controversy and the Old Testament”, in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Ed. D. and E. Spring. (New York: Harper & Row, 1974).
- _____, *The Garden of Eden and the Hope of Immortality* (Minneapolis: Fortress, 1992).
- Barth, K., *Kirchliche Dogmatik III/1*, S. 231.
- Bird, P., “‘Male and Female He Create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HTR* 74 (1981), 140–144.
- Blenkinsopp, J., *Treasures Old & New: Essays in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Cambridge/Michigan: Grand Rapids, 2004).
- _____, *Creation, Un-Creation, Re-Creation: A Discursive Commentary on Genesis 1–11* (London/New York: T&T Clark, 2011).
-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Childs, B. S., *Myth and Reality in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1960).
- Cummings, C., *Eco-Spirituality. Toward a Reverent Life*, Mahwha, 1991.
- Drewermann, E., *Der toedlich Fortschritt. Von der Zerstoerung der Erde und des Menschen im Erde des Christentums*, Regensburg, 1992.
- Gross, W., “Syntaktische Erscheinungen am Anfang althebraeischer

- Erzaehlungen: Hintergrund und Vordergrund". *VTSup* 32(1981), 131-45.
- Frymer-Kensky, T.,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rael", in C.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 Harner, P., "Creative faith in Deutero-Isaiah", *VT* vol. 17(1967): 305.
- _____, "The Salvation oracle in Second Isaiah", *JBL*, 88(1969):428.
- Hayden, T. *The Lost Gospel of the Earth: A Call for Renewing Nature, Spirit, and Politics*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6).
- Houston, W. J., *Justice-The Biblical Challenge* (London: Equinox, 2010).
- Lilje, H., *Das technische Zeitalter, Versuch einer biblischen Deutung*, (Berlin, 1928).
- Loewith, K., *Vortraege und Abhandlungen, Zur Kritik der christlichen Ueberlieferung*, (Stuttgart, 1966).
- Moltmann, J., *Gott in der Schoepfung, Oekologische Schoepfungslehre*, Muenchen, 1985.
- Preuss, 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95).
- Schaefer, P., "Zur Interpretation von Gen 1:1 in der rabbinischen Literature", *JSJ* 2 (1971), 161-66.
- Schmidt, W. H., *Die Schoe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64).
- Veijola, T.,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tischen Darstellung* (STAT.AASF 193),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77).
- Vervenne, M., "The Question of 'Deuteronomic' Elements in Genesis to Numbers," F. G. Martnezemf(eds.),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VTSup 53), (Leiden: Brill, 1994).
- Von Rad, G.,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Olive & Boyd, 1965).
- _____,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 Ueberlieferung*, (Muenchen, 6. Aufl., 1969).
- Young, E. J., “The Interpretation of Gen 1:2”. *WTJ* 23(1960/61), 151–78.
- Waal, E. *Shema and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Corinthians: an intertextual approach to Paul's re-reading of Deuteronomy*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Waltke, B. K.,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Michigan: Grand Rapids, 2007).
- Wenham, G. J., *Genesis 1–15* (WBC: WACO, Texas: Word, 1987).
- Westermann, C., *Genesis 1–11* (Neukirchener Verlag, 1974).
- _____, *Die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ab es ein deuteronomistisches Geschichtswerk?* (TBÜ 87)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4).
- White Jr.,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 Wildberger, H., “Das Abbild Gottes”, *Theologische Zeitschrift* 21 (1965).

검색어

생태계 파괴

창세기 1장 1-2장 4a절

수사적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

생태 윤리

Ecological Ethics in the Rhetoric Structure of Genesis 1:1-2:4a

Eun Woo Lee, Ph..D

Professor, Department of Hebrew and Old Testamen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entire ecosystem is now confronting a serious crisis as a consequ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The critics of the Christianity argue that the anthropocentric world view in the Bible brought about environmental cri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Genesis 1-2 which, according to the critics of the Bible, justifies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suppression, and to study the feasibility of their argument.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writer investigates the rhetoric structure in Genesis 1:1-2:4a and finds symbolic instructions given to maintain the balanced harmony and beauty of the created world. The present writer also attempts to make lexical and exegetical analysis on the verbs as 'conquer' and 'subdue', which the critics of the Christianity maintain as one of the

www.kci.go.kr

most environmentally destructive terminologies. The writer stresses the democratic concept of Imago Dei which is given to the human being. The writer examines the ecological meaning in the concept of the Sabbath and dietary culture which is emphasized in Creation story. In conclusion, the writer argues that the contention of Christian critics is resulted from the misunderstanding or deficiency of knowledge on the biblical texts and expressions. At the same time, the writer insists that biblical scholars should make more efforts for ecological Bible reading and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to preserve the ecosystem.

Keywords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Genesis 1:1-2:4a, Rhetorical beauty

The image of God

Ecological ethics

- 투고일: 2012년 3월 1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